

産卵때 「까치집」을 撤去하는 韓電

○...까치의 産卵번식기인 3~4월에 접어들자 蔚州 지방의 韓電서는 까치집으로 인한 고압선 단전사고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까치집철거에 나섰다. 한전측의 자문을 받았다는 한국조류보호회서는 산란기만은 절대로 피해 5-6월경에 철거토록 요청했는데 얼마전 TV화면에는 高架사다리를 동원해서 그곳 한전에서 철거하는 장면이 보도되어 좋은 方案이 있을법한데 까치야 죽건말건 쉬운방법을 취한듯하여 아쉽고 갈곳없이 눈물짓는? 까치들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가련하기만.

까치는 나라새로 口傳돼온 吉鳥

서울등 40余 地自團體의 市·郡鳥

○...까치는 옛부터 나라의 새로 口傳되어 왔으며 吉鳥가운데 손꼽혀 설날의 까치소리·반가운 손님이나 소식이 올때는 까치가 알린다고 전해와 어릴적부터 그런 동요나 전설속에 살아왔다.

서울특별시·城南市를 비롯하여 市鳥·郡鳥로서 까치를 指名한곳이 40여군데나 되며 국민은행등 기관·단체새로도 指名되어있어 우리 생활의식속에 간직된 기쁜감정의 새임이 틀림없다.

우리祖上은 까치밥도 남겼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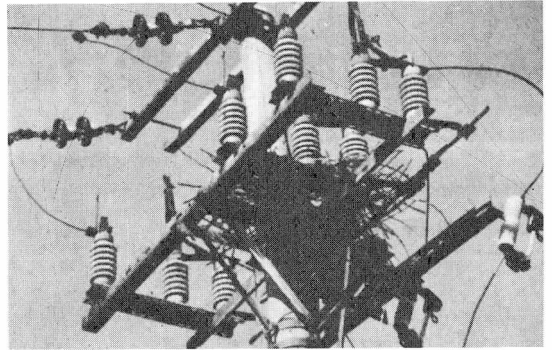
그러기에 가을에 「까치밥」을 하여 감나무·대추나무등에 우리先祖들은 까치먹이를 남겨두는 풍속을 남기기도 했다. 다익은 과일을 까치가 먼저 쪼내고 害鳥로 규정하는 사람도 있으나 害虫을 잡아먹고있어 平均해서 吉鳥로 내려오고 과일을 쪼다해서 잡아 죽이는 일은없고 다만 쫓기만했다.

까치없는 濟州道에 60마리 보낸 鳥保協

電柱에 팔랑개비달아 얼씬못하게 만들고.....

○...韓國鳥類保護協會서는 89년에 까치가 없는 濟州道에 암수 60마리를 보냈는데 성과에 따라 역시

까치가 없음을 안타까와하는 鬱陵郡에도 보낼 예정이라 한다.



▲ 전주의 까치둥지

전주에 까치집 못짓게 팔랑개비부착

京仁일보 3.22.자 보도에 의하면 한전高陽지점(지점장 張浩洙)에 근무하는 李모 팀장등 13인의 보수반원들은 매년 1월-5월사이 까치가 집을 지을수 있는 對象電柱에 까치의 생리를 파악, 어린이장 난감 프로펠라(팔랑개비)를 달아놓았더니 까치들이 접근을 못하게되고 매년 1/4분기중 8개 이상의 까치집이 생기던것이 한집도 짓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 蔚州쪽의 산란기에 철거하는 소동보다는 단곳으로 가계한것은 동물애호를 위해서도 進一步한것 같다.

까치人工巢箱 考案해서 기증했으면

○...그런데 문제는 과연 停電·斷電의 罪가 까치에만 100%있느냐. 全體 事故의 몇%인지는 알수 없으나 따지고보면 「까치」에게만 罪를 줄수없는일.

住宅街에 있던 老木들도 密集住宅건설과 再開發의 불도저에 밀려 쓰러지고 많던 까치둥지를 보기 힘들게 되었으니 까치들이 考案해낸것이 人間들과 먼곳에 서있는 電柱가 아니었겠는가 생각된다.

人工까치巢箱을 鳥類研究家가 考案해서 까치가 安心하고 살게하는 方法을 찾았으면.(浪)